

가사 <운림처사가(雲林處士謠)>에 나타난 강호 인식의 양상과 도선(道仙) 지향

송재연*

- I. 서론
- II. 광해(光海) 혼정기(昏政期) 안동 은거와 삼귀정(三龜亭)에서의 풍류적 삶
- III. 가사 <운림처사가>에 나타난 강호 인식의 양상과 도선(道仙) 지향
- IV. 처사가(處士歌) 계열 작품과의 비교를 통한 <운림처사가>의 의의
- V.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문학적 생애 가운데 광해(光海) 혼정기(昏政期) 안동(安東) 풍산(豊山)에서의 은거 양상을 재구하고, 이를 토대로 『해동유요(海東遺謠)』 소재 가사 <운림처사가(雲林處士謠)>에 나타난 강호 인식의 양상과 도선(道仙) 지향 의식을 고찰하고자 작성된 것이다.

당쟁과 전란이 연속되었던 혼란기를 보냈던 김상헌은 의리와 절의를 중시하는 도학자적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환로(宦路)에 들어선 후부터 광해군을 비롯한 대북과 세력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며 부침(浮沈)을 거듭했던 그는, 1618년 사회의 혼란과 집권 세력의 박해를 피해 안동의 풍산으로 내려가 3년 동안 이곳에서 은거하였다.

풍산으로 낙향한 김상헌은 청원루(淸遠樓)에서 은거 생활을 시작했다. 청원루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는 삼귀정(三龜亭)이 있었는데, 삼귀정 주변의 아름다운 산수자연의 경치를 완상하며 세상의 시름을 잊을 수

* 서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피세(避世)를 위한 은일의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지인들과 교류하며 회포를 푸는 풍류의 장(場)으로 심적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안동 풍산 은거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사 <운림처사가>는 광해 혼정기의 현실에 대한 실망으로 산수자연에 은거한 처사의 삶을 노래한 작품으로, 풍산 삼귀정 일대의 자연경관을 완상하며 풍류를 즐기는 삶을 통해 속세의 번민에서 벗어나려는 피세적(避世的) 위안과 주어진 분수에 만족하며 천명(天命)에 순응하려는 삶의 태도가 구현되어 있었다. 또한 정치적·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당대 현실을 부정(否定)함으로써 삼귀정 일대의 승경을 ‘선계(仙界)’라는 대리 만족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현실에서 불우(不遇)한 자아가 신선이 된 것처럼 선계를 즐기며 안식과 위로를 얻고자 하는 선취적(仙趣的) 삶을 지향하고 있었다.

아울러 가사 <운림처사가>의 작품 양상은 창작연대와 작자 미상의 상태로 전해지는 처사가 계열의 작품군과는 차이를 보였다. 처사가 계열의 작품군에서는 운림처사로 은거하게 된 상황에서 자연경관의 아름다움과 그곳에서 느끼는 흥취를 추상적으로 표출하고 있을 뿐 은거의 계기나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이념적 지향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해동유요』 소재 <운림처사가>에서는 광해 혼정기 현실에 대해 부정함으로써 야기된 천명에 순응하는 운명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선계’라는 이상적 공간을 설정하여 불우(不遇)한 자아가 유선적(遊仙的) 삶을 지향함으로써 위안을 얻고 있었다.

핵심어: 해동유요, 운림처사가, 은거, 김상헌, 삼귀정(三龜亭), 천명(天命), 선취(仙趣), 취락(醉樂)

1. 서론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중반까지 정치적 혼란기를 살았던,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은 기호학과(畿湖學派) 성향의 도학자이자 당

과적으로는 서인(西人)에 속하면서 적화파(斥和派)를 이끌었던 정치가라고 할 수 있다. 선조조(宣祖朝)의 당쟁과 임란왜란, 광해조(光海朝)의 대북파(大北派)에 의한 난정(亂政), 인조조(仁祖朝)의 반정(反正)과 이괄(李适)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커다란 사건과 전란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시기를 살았던 김상헌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의리와 명분에 따라 출처(出處)를 선택하며 삶의 양태를 달리하였다. 1601년 제주도 안무어사(安撫御史)로 환로(宦路)에 들어선 그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순탄한 관직 생활을 했는데, 광해군이 즉위한 이후에는 대북파(大北派)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 집권 세력의 배척을 당해 외직을 전전하였다. 1611년에는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의 배척에 앞장선 정인홍(鄭仁弘)을 탄핵한 계사(啓辭)를 기초한 일로 광주부사(廣州府使)로 좌천되었고, 1613년에는 칠서지옥(七庶之獄)이 발생하여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아버지인 김제남(金悌男)이 죽음을 당할 때 그의 양자인 김광찬(金光燦)이 김제남의 손주사위였던 관계로 파직되었고, 1615년에는 광해군 소생모(所生母)의 존봉(尊封)을 중국에서 허락해 준 데 대해 ‘사황태자전문(謝皇太子箋文)’을 지은 것이 시의(時議)를 거슬러 삭탈관작되었다. 그 뒤로 집권세력의 정치적 꺾박을 우려하던 그는 1618년 어머니를 모시고 안동(安東) 풍산(豐山)으로 내려가 은거하였다.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다시 환로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순리를 따르며 출처를 반복했는데, 병자호란이 일어난 후에는 끝까지 주전론(主戰論)을 펼치다가 인조(仁祖)의 항복과 함께 풍산의 서미동(西薇洞)으로 들어가 은거하였다. 이후 1639년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요구한 출병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청나라에 압송되었고, 6년 후인 1645년 구류에서 풀려 양주(楊州)의 석실(石室)로 돌아온 그는, 더 이상 환로에 나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격변기의 삶 속에서 김상헌은 다양한 문학 활동을 했는데, 그가 지은 한시문은 『청음집(淸陰集)』을 비롯하여 제주 기행 시문집인 『남사록(南槎錄)』, 심양(瀋陽)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주고받은 시를 모은 『설교수창집(雪窖酬唱集)』 등으로 편찬되었다. 특히 그는 한시문뿐만 아니라 국문문학에도 관심이 많아서 병자호란 때 고국을 떠나면서 비분강개의 심정을 노래한 시조 “가노라 삼각산아~”를 지었고, 또 정철(鄭澈)의 가사

<관동별곡(關東別曲)>을 한시로 번역한 <관동별곡번사(關東別曲翻詞)>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상헌의 작가 의식과 문학 작품에 대한 논의는 주로 강직한 의리와 절의로 도학자적 삶을 살았던 병자호란 이후의 작품 양상에만 편중되어 있어서 그의 문학 활동 전반 또는 병자호란 이전의 작품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김상헌의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그의 생애와 작품세계와의 연관 속에서 한시 전반을 통괄¹⁾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병자호란을 겪은 후에 지어졌거나 심양에 억류되었을 시기에 산출된 한시 작품만을 대상으로 현실에 대응하는 양상과 작가의식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²⁾ 한편, 척화파로서 절의의 상징으로만 바라보던 그간의 시각에서 벗어나 한시에 나타난 지식인으로서 김상헌의 고뇌와 번민, 초탈의 내면세계를 고찰하거나 유선시(遊仙詩) 창작의 배경과 유선시에 구현된 선계(仙界) 지향 방식을 살피고자 했던 논의³⁾도 진행되었는데, 이는 김상헌의 작가적 면모와 문학세계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상헌이 지은 것으로 기록된, 『해동유요(海東遺謠)』 소재 가사 <운림처사가(雲林處士謠)>는 병자호란 이전의 현실에 대응하는 양상과 작가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사는 『해동유요』에 수록된 작품을 고찰하던 이혜화⁴⁾에 의해 학계에 소개되

-
- 1) 하진규, 『청음 김상헌의 생애와 문학』,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김경미, 『청음 김상헌 시 연구』, 『연세어문학』 제21집,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1988, 199~234면; 성범중, 『청음 김상헌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제9호, 한국한시학회, 2005, 101~135면; 김하운, 『청음 김상헌의 한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2.
 - 2) 조명주, 『『설교수장집』을 통해 본 청음 김상헌의 시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98; 황인건, 『병란 직후 지식인의 시적 대응-청음 김상헌의 『설교집』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제6집, 한국시가학회, 2000, 103~124면; 김기림, 『청음 김상헌의 시에 나타난 심양 체험과 그 인식:『설교집』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37집,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2015, 5~25면; 박수밀, 『병자호란의 상흔과 청음 김상헌의 심양 억류 체험 고찰』, 『한국문학과예술』 제31집, 숭실대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9, 291~317면; 우경섭, 『청음 김상헌의 현실 인식과 척화론』, 『한국사상사학』 제67집, 한국사상학회, 2021, 317~349면.
 - 3) 김하운, 『청음 김상헌 한시에 나타난 지식인의 고뇌와 초탈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제78집, 한민족어문학회, 2017, 213~239면; 김하운, 『청음 김상헌의 유선시 소고』, 『어문연구』 73집, 어문연구학회, 2012, 161~184면.
 - 4) 이혜화, 『해동유요 소재 가사고』, 『국어국문학』 96호, 국어국문학회, 1986, 91~92면 참조.

었는데, 그는 김상헌의 생애, 작품내용 및 작가의식 등을 검토하여 이 작품이 김상헌이 안동에 은둔했던 광해군 말기, 즉 광해군의 뜻을 거슬러 파직당한 후부터 인조반정으로 정계에 복귀했던, 1614년에서 1624년 사이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바 있다. 따라서 이 가사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 광해(光海) 혼정기(昏政期)⁵⁾를 살았던 위정자(爲政者)이자 지식인 작가 김상헌의 내면의식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리와 절의 중심으로만 평가되었던 그간의 편향된 이해에서 벗어나 그의 문학세계를 좀 더 입체적으로 재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청음집』 소재 한시문 가운데에는 광해군 당시 안동에 은거했던 김상헌이 관직 생활에 대한 갈등을 표출하거나 자연에 귀의하여 한정(閑情)을 회구하는 내용, 유선(遊仙) 지향적인 면모를 강하게 드러내는 작품이 많다는 사실은 가사 <운림처사가>를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인 송시열(宋時烈)이 작성한 『청음연보(淸陰年譜)』와 『청음집』 소재 한시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김상헌의 문학적 생애 가운데 광해 혼정기 안동 풍산에서의 은거 양상을 재구하고, 이를 토대로 『해동유요』 소재 가사 <운림처사가>에 나타난 강호 인식의 양상과 도선(道仙) 지향 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다만, 『청음집』에서 김상헌의 가사 <운림처사가> 창작과 관련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동유요』의 편찬 시기가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로 밝혀진 점⁶⁾을 고려했을 때 이 가사의 작자가 과연 김상헌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김상헌은 이미 국문시조를

5) 오늘날의 역사적 가치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당대적 가치개념으로 ‘광해 혼정기’라는 용어를 사용한 성기옥의 견해를 수용하였다. 근대 이전의 사대부 지식인들은 한결같이 광해군 시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혼정(昏政), 혼조(昏朝), 혼주(昏主) 등의 말을 스스럼없이 쓰고 있는데, 이는 광해군이 폭군이거나 정치적으로 무능한 군주로 인식되어서가 아니다. 동기간인 영창대군(永昌大君)·임해군(臨海君)을 죽이고 모후(母后)인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서궁에 유폐시키는 등 강상(綱常)의 윤리를 어지럽힌 ‘패덕(悖德)한’ 군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강상의리(綱常義理)를 그들 가치관의 최고 덕목으로 내세우는 유가적 세계관에서 보면 당연한 역사인식이라 할 수 있다. 성기옥, 『조주후풍가, 해석의 문제점:이시의 『조주후풍가』와 광해 혼정기의 안동사립 (1)』, 『진단학보』 제110호, 진단학회, 2011, 263~264면 참조.

6) 정소연, 『해동유요』에 나타난 19세기 말 20세기 초 시가 수용 태도 고찰-노래에서 시문학으로의 시가 향유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교육』 제32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6, 287~326면; 손태도, 『가곡(歌曲)의 『청구영언』(1728)에 비견되는 가사(歌辭)의 『해동유요』(1909)』, 손태도·정소연 엮음, 『해동유요 영인본』, 박이정, 2020, 7~85면.

직접 창작한 바 있고, 정철의 가사 <관동별곡>을 직접 한역(漢譯)하여 <관동별곡번사>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가사 양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지취(志趣)를 구현할 수 있는 충분한 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가 시조 <오륜가(五倫歌)>를 지은 김상용(金尙容)의 동생인 점과 다양한 시조 작품을 창작·향유한 신흠(申欽), 이정귀(李廷龜), 조존성(趙存性) 등과 교유했던 점에 근거한다면 익숙했던 시조 향유의 경험을 토대로 직접 가사를 창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문학으로 기록할 만한 작품을 모으고자 했던 『해동유요』 편찬의식을 전제로, 『청음집』에 수록되어 있는 김상헌작 한시 <증관동안사윤중소리지(贈關東按使尹仲素履之)> 4수 가운데 제3수가 『해동유요』에 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비전승되던 김상헌의 가사를 수집하여 기록했을 여지도 있다. 한편, ‘처사가’, ‘운림처사가’, ‘雲林處士歌’라는 제명(題名)으로 전해지는 작자미상의 처사가 계열 작품이 『악부(樂府)』, 『가곡(歌曲)』(연세대도서관 소장), 『역대가사문학전집』 등에서 다수 확인되는데, 대부분의 작품이 자연 경개(景概)를 벗삼아 유유 자적한 삶을 즐기고자 하는 지취(志趣)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면모를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해동유요』 소재 <운림처사가>는 여타 작품들과 창작동기나 주제 구현 방식에 있어서 변별적 면모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처사가 계열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해동유요』 소재 <운림처사가>에 구현된 작가적 면모와 문학적 의의를 좀 더 세밀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II. 광해(光海) 혼정기(昏政期) 안동 은거와 삼귀정(三龜亭)에서의 풍류적 삶

선조(宣祖) 말엽부터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광해군을 추종하는 대북파(大北派)와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지지하는 소북파(小北派) 간의 갈등이 심각해졌는데, 1608년 선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광해군이 즉위하게 되면서 정인홍 중심의 대북파가 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대북파는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인사권을 장악하며 중앙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서 소

북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영수인 영의정 유영경(柳永慶)을 탄핵해서 사사(賜死)함으로써 영창대군 및 그 주변 세력을 제거하였고, 영창대군의 생모인 인목대비(仁穆大妃)를 몰아내려고까지 하였다. 그러던 중 1613년 조정 대신의 서얼들인 박응서(朴應犀), 심우영(沈友英), 서양갑(徐洋甲), 박치의(朴致毅), 이경준(李耕俊), 박치인(朴致仁), 허홍인(許弘仁) 등 7인이 문경의 새재[鳥嶺]에서 상인을 죽이고 은을 강탈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북파의 핵심인물인 이이첨(李爾瞻)은 그들을 붙잡아 심문하면서, 그들이 영창대군을 옹립해 인목대비의 수렴정정을 돕기 위한 거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적질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고, 이를 구실로 인목대비의 아버지인 김제남(金梯男)을 사사(賜死)하고, 영창대군을 서인(庶人)으로 폐하여 강화도에 유폐시켰다가 이듬해 살해했다. ‘칠서지옥(七庶之獄)’ 또는 ‘계축옥사(癸丑獄事)’라고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영의정 이덕형(李德馨)과 좌의정 이항복(李恒福)을 비롯한 서인·남인들은 관직을 삭탈당하거나 유배되었고, 인목대비마저 폐위되어 서궁에 유폐되었다. 이후 대북파는 선왕의 유교칠신(遺教七臣) 중 신흘(申欽), 박동량(朴東亮), 한준겸(韓濬謙) 등 반대파 대신들을 조정에서 쫓아낸 후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⁷⁾

대북파가 집권한 상황에서 김상헌의 정치적 입지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1615년 관과(觀過)의 죄⁸⁾로 이미 관직이 삭탈되었던 그는, 정세가 혼란스럽고 민심이 흉흉한 상황 속에서 집권 세력인 대북파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1618년 어머니 이부인을 모시고 안동의 풍산으로 이거(移居)하였다.⁹⁾ 그리고 1621년 봄에 양주(楊州)의 석실(石室)로 돌아가기 전까지 만 3년간 안동 풍산 소요산(素耀山) 일대에서 은거하게 된다.

풍산으로 낙향한 김상헌은 그의 증조부인 김번(金璠)의 옛 집에서 지냈다. 그는 이 집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주돈이(周敦頤)의 <애련설(愛蓮說)>에 있는 ‘향원익청(香遠益清)’에서 뜻을 취해 ‘청원루(淸遠樓)’라 명명하고

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0: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2003, 69~74면 참조.

8) 『광해군일기』 권33, 광해7년(1615) 8월 13일. “司憲府啓曰: 司果金尙憲所製, 恭聖王后冊封誥命謝恩箋文中, 有‘念母貴之由子’, ‘竊干觀過之聽’等語, ‘觀過’二字, 臣子所不敢言者, 尙憲乃以譏刺之言, 敢綴謝恩之文, 其無君不道之狀, 極爲痛憤.”

9) 송시열, 『청음연보』, 광해군 10년 무오. “奉李夫人, 往安東豐山寓居(時, 時事昏亂已甚, 人心危懼, 都下洶洶, 若不保朝夕, 仙源先生, 奉几筵, 寓居關東, 先生亦奉李夫人, 南歸.”

은거 생활을 시작하였다.¹⁰⁾ 청원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삼귀정(三龜亭)’이 있었는데, 이곳은 피세(避世)를 위한 은일의 공간이자 풍류를 즐기 위한 교유의 장(場)이었다. 삼귀정은 풍산 금산촌(金山村) 동쪽 ‘동오(東吳)’라는 작은 봉우리에 위치한 정자로, 이곳에서 풍산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1496년 풍산의 소산(素山)에 거주하는 진사 김영균(金永鈞)의 요청을 받아 <삼귀정기(三龜亭記)>를 지었던 성현(成俔)은, 정자 터에 있는, 세 개의 거북 모양 바위를 들어 노모 예천권씨(禮泉權氏)의 장수를 염원하는 김영수(金永銖) 형제들의 마음을 칭송하는 한편, 삼귀정 주변의 산과 강, 기암괴석과 나무 등 자연경물이 조각(組閣)하는 아름다운 형상에 대해 찬미하였다.

정자의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은 모두 너른 들판으로 그 형세가 시원하게 푹 트여서 아득히 먼 곳까지 조망해 볼 수 있다. 정자의 남쪽에는 ‘곡강(曲江)’이라고 하는 큰 시내가 있으니 곧 낙수(洛水, 낙동강)이고, 또 ‘마라(馬螺)’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연못가에는 절벽이 웅장하게 솟아 높이가 만 길은 될 듯하고, 강가에 있는 긴 숲은 10리 남짓 뻗어 있다. 정자의 북쪽에는 ‘학가산(鶴駕山)’이 있는데, 쌍계(雙溪)가 이 산에서 흘러나와 낙수로 들어가며, 그 두 물이 만나 모이는 곳을 ‘병담(屏潭)’ 또는 ‘화천(花川)’이라고 한다. 병담 앞의 봉우리에는 또 천여 길 정도 되는 ‘병벽(屏壁)’이라고 하는 석벽이 있고, 쌍계의 북쪽에는 ‘봉암(鵬巖)’이라고 하는 기암이 있다. 쌍계의 양쪽에는 밤나무 천여 그루가 있는데 층층이 푸른빛을 뽐으며 무성하게 가지를 뻗고 있다. 정자 아래에는 논배미와 보리밭이 펼쳐져 있는데 봄에는 푸른 새싹이 머리털처럼 풍성하게 자라나고 가을에는 누렇게 익은 이삭이 구름처럼 일렁이니 참으로 드물게 아름다운 곳이라 하겠다.¹¹⁾

이 글을 보면, 삼귀정에서 ‘곡강’이라 불리던 낙동강과 ‘마라담(馬螺潭)’을 볼 수 있는데, 연못가에는 절벽이 우뚝 솟아 있고 강가를 따라 숲이 길

10) 황만기, 『안동체류기에 있어서 청음 김상현의 활동과 문학』, 『국학연구』 제20집, 한국국학진흥원, 2012, 506면.

11) 성현, <三龜亭記>, 『허백당문집』 권5. “東西南皆距海, 厥勢敞豁, 眺望無際. 亭南有大川, 曰曲江, 卽洛水也, 有潭曰馬螺, 潭上絕壁巖巖, 高可萬丈, 江上長林, 連亘十里餘. 亭北又有山, 曰鶴駕, 有雙溪出自山間來入于洛, 其會水處爲屏潭, 或稱花川. 其峯又有石壁千餘丈, 曰屏壁, 雙溪北有奇巖, 曰鵬巖. 溪兩傍有栗樹千餘株, 層翠紛敷. 亭下有稻籐麥壟, 春則綠髮丰茸, 秋則黃雲穠穉, 眞奇勝之地也.”

게 뻗어 있었다. 또 정자의 북쪽에 위치한 학가산에서 발원한 쌍계는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고, 두 물이 만나는 곳인 ‘병담’ 앞에는 천여 길쭉 되는 ‘병벽’이, 또 쌍계의 북쪽에는 ‘봉암’이 위치하고 있었다. 또 정자의 아래로는 논배미와 보리밭이 펼쳐져 있어 봄가을로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처럼 삼귀정 주변 자연경물의 아름다운 경치를 완상하던 김상헌은 신흠에게 삼귀정을 중심으로 한 팔경(八景)을 시로 표현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¹²⁾, 신흠은 삼귀정 주변의 승경을 학가산의 맑게 갠 봉우리[鶴嶠晴峯], 마을의 가파른 절벽[馬崖峭壁], 마을에 피어나는 연기꽃[縣里煙花], 역동의 쓸쓸한 소나무[驛洞寒松], 장교의 과중하는 모습[長郊觀稼], 낙동강 굽이의 고기잡이[曲渚打魚], 삼복더위의 피서지[三伏避暑], 중추절의 달구경[仲秋翫月]으로 선취(選取)하여 팔경시(八景詩)로 형상화했다. 또 이에 대해 김상용(金尙容), 유근(柳根), 홍서봉(洪瑞鳳), 박동열(朴東說), 김류(金瑬), 조찬한(趙纘韓), 장유(張維), 신익성(申翊聖) 등 당대 이름난 문사들도 차운시를 지었다.

물론 김상헌 자신도 가문 내에서 삼귀정이 가지는 의미와 수려한 자연경관에 주목하여 그 감회를 한시로 표출하였다.

선인께서 이 정자를 지어 남겨 놓았거니	先人遺構此亭存
잘 지켜서 전하는 건 자손들의 책임이네	扶護相傳有子孫
세 방면의 강과 산이 주위를 빙 둘러 있고	三面江山環遠近
사시사철 향당 사는 노소 모여 술 마시네	四時鄉黨酌卑尊
전한 유풍 이를 만해 이제 미풍 되었거니	流風可繼今爲美
그 옛날에 돈독했던 뜻을 어찌 잊으리오	厚誼寧忘古所敦
천 리 밖서 홀로 오매 감개 더욱 더하니	千里獨來增感慨
흰머리로 올라보곤 혼이 한 번 상하누나	白頭登望一傷魂 ¹³⁾

12) 신흠, <三龜亭八詠> 발문, 『상촌집』 권17. “金氏之有三龜亭舊矣。經始之跡，登覽之美，戲綵板輿之榮觀，悉具虛白成公記中，而太史氏載之興誌，以備國乘之一。後百年，金氏之裔清陰公以亭之八景要余詩之。余驚曰，金氏之有茲亭久矣，亭之不失金氏亦久矣哉。昆明柏梁，國亡則與亡，綠野平泉，人去則與去。世百年而能守其舊業者，一何其難也。當時之玄壁紅版，斷崇臨濬者，幾易姓易主，公乃獨全之於世，故兵火千燒萬戰之餘，其易故也。無亦來之以德，物莫之奪者耶。苟然則金氏之有茲亭，不知又當幾百年哉。”

이 작품은 김상헌이 삼귀정에 올랐다가 느낀 바가 있어 조카인 김희맹(金希孟)에게 써서 보이고 겸하여 마을의 여러 친족 어른들께 바친 시이다. 김상헌은 선조인 김영수 형제가 노모 예천권씨를 즐겁게 하고, 또 장수를 기원하는 뜻을 담아 삼귀정을 건립했던 의미를 되새기며 정자를 잘 보전할 것을 후손들에게 권계하는 한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춘 이곳에서 풍류를 즐겼던 향인(鄕人)들의 유풍(流風)을 미풍(美風)이라 찬탄하였다. 그리고 천 리나 떨어진 곳에서 이곳으로 귀향한 그는 옛 기억을 회상하며 감개 무량했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이 정자에 올라보게 된 데 대한 애달픈 심정까지 표출하였다.

한편, 김상헌은 친분이 돈독했던 지인과 삼귀정에서 교류하며 흥취를 즐기는 풍류적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애사 소리 밝은 대낮 화당 안에 올리는데	哀絲白日動華堂
맑은 가을 삼삼(颯爽)하여 서늘 기운 상쾌하네	颯颯清秋爽氣涼
소산(蕭散)할사 야인 형색 은사 도잠의 모습이고	蕭散野人陶隱逸
풍류로운 태수 모습 한나라의 순량(循良)이네	風流太守漢循良
술잔 앞서 한 번 웃어 나그네의 회포 깨고	樽前一笑羈懷破
취한 뒤에 담소하며 짐짓 광태(狂態) 지어 보네	醉後高談故態狂
천 리 밖서 서로 만나 진정 해후하였거니	千里逢迎眞邂逅
영호루의 관도에서 너무 깊이 수심 마소	映湖官路莫愁長 ¹⁴⁾

인용한 작품은 술을 준비하여 기생을 데리고 온 안동부사와 함께 삼귀정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셨던 일을 제재로 하여 지은 시이다. 이때 술자리를 마련했던 안동부사는 1619년 부임하여 1621년까지 재직했던 박로(朴簠, 1584~1643)인 것으로 추정된다.¹⁵⁾ 이들은 박로가 건립한, 마포의 수명정(水明亭)에서 시를 수창하며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보이는데,¹⁶⁾ 시구 ‘천

13) 김상헌, <登三龜亭有感, 書示族子金子醇, 兼奉里中諸戚丈> 제1수, 『청음집』 권5.

14) 김상헌, <安東府伯治酌携伎, 到三龜亭醉飲而歸>, 『청음집』 권6.

15) 『광해군일기』의 ‘광해군 13년(1621) 4월 14일’조 기록을 보면 박로는 “신의 직책을 체직하고 선졸(船卒)로 삼아서 신의 아버지를 찾아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安東府使朴簠上疏: 迄乞遞臣職, 願爲船卒, 往訪臣父)”라고 상소했는데, 이에 의하면 김상헌이 은거했던 시기에 안동부사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리 밖서 서로 만나 진정 해후하였거니(千里逢迎眞邂逅)’는 이러한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맑은 가을날 시원한 바람이 불 때 낙향한 은사(隱士)와 지방관으로서 다시 해후(邂逅)한 두 사람이 술잔을 나누며 그간의 회포를 푸는 심정이 절실하게 드러나 있다.

또한, 삼귀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풍류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혼란을 피해 귀향한 김상현으로 하여금 미래의 삶을 고뇌하게 하는 정서적 매개체로 기능하기도 했다.

붉은 잎새 푸른 절벽 수놓은 듯 찬란하니	紅葉蒼崖爛錦披
하얀 모래 깔린 물가 석양 내려 비칠 때네	白沙洲渚夕陽時
잔 기울여 잔뜩 마신 중앙주에 취했거니	傾壺更醉重陽酒
모자 날려 머리카락 흩날림을 뭘 꺼리랴	落帽何嫌滿鬢絲
수면 위엔 물결 다시 동하려고 하고 있고	水面風瀾還欲動
술잔 속엔 달빛 이미 먼저 엿봐 스미누나	盃心月色已先窺
국화 난초 아름다워 괜히 마음 슬프거니	菊芳蘭秀空惆悵
하늘 저 끝 있는 가인 어디에서 만나려나	天末佳人何處期 ¹⁷⁾

이 시는 김상현이 9월 12일에 삼귀정 주변의 시내인 망천(綱川)에서 노닐고 그 감회를 표출한 작품이다. 붉은 단풍이 푸른 절벽을 수놓은 듯 장식한 가을날, 하얀 모래사장에 석양이 내려앉을 무렵에 술에 만취한 작자는, 진(晉)나라 때 중앙절(重陽節) 잔치에서 관모(冠帽)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도 몰랐다고 하는 맹가(孟嘉)의 ‘낙모가절(落帽佳節)’ 고사에 빗대어, 자신의 호탕한 정회를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바람에 다시 출렁이는 물결과 술잔에 스며든 달빛을 바라보면서 국화와 난초의 향기에 하염없이 슬퍼진 작자는 하늘 저 끝에 있는 가인(佳人)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느냐고 탄식하며 정치적 혼란을 피해 귀향한 심정과 ‘영창대군’으로 표상되는 ‘가인’에 대한 연모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16) 『순창군지』 순창군 ‘제영’편에 박모(朴蓑)가 교유했던 양시진(楊時晉)의 사행 전별연을 기념하여 남긴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김상현이 지은 시 “鴨水燕山路苦長 薊門煙樹接蒼茫 愁霖畏熱行經盡 歸把秋觥泛菊香”가 전한다.

17) 김상현, <九月十二日遊綱川, 用爍兒韻>, 『청음집』 권6.

III. 가사 <운림처사가>에 나타난 강호 인식의 양상과 도선(道仙) 지향

1. 피세적(避世的) 위안과 천명(天命) 순응적 삶의 선택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광해군의 난정(亂政)과 대북파와의 정쟁(政爭)으로 야기된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겪었던 김상헌은 현세의 삶에 대한 근심에서 벗어나려는 피세(避世)의 방편으로 은거를 선택했고, 그 공간인 안동 풍산의 청원루와 삼귀정에서 산수자연을 즐기는 풍류적 삶을 살면서 심적 위안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사 <운림처사가>의 서두를 보면, 화자는 김상헌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구속하는, 세상의 번거롭고 속된 일들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선택했다. 속세로부터 ‘천리만리(千里萬里)’ 떨어진 산속의 심처(深處)를 찾아가는 화자는, 구룡소의 늪은 용이 여의주를 다투는 듯 맑은 바람에 흔들리는 오래된 소나무를 바라보며 은거지를 향하는데, 도화(桃花)를 꺾어 손에 쥐고 산수(山水) 사이로 들어가다가 백구와 벗하면서 자연과 하나되는 조화로우름을 표현하였다. 또, 구름에 닿을 만큼 높고 험준한 길을 지나 봄빛 가득한 산속의 승경을 접하고, 속세와 대비되는 복희씨(伏羲氏) 때의 태평한 세상을 떠올렸다.¹⁸⁾

雲林의 드러오니 내 벗이 뉘 이시리
清風明月을 갑술 주고 사라마는
날과 有信 ㅎ야 간 곳마다 쓰로논고
어와 즐겁고야 이거시 어디메오
도타도 ㅎ려니와 넷사름 니른 말이
宅不處仁이면 焉得智라 ㅎ여시니

18) <운림처사가>. “인간이 瀟灑거늘 世事을 끌이치고 / 紅塵網을 쫓여나서 定處업시 보린 몸이 / 山이야 구름이야 千里萬里를 드리가니 / 層巖截壁의 에구분 늪은 숲이 / 清風의 興을 계워 우지우지 ㅎ는 樣은 / 九龍소 늪은 龍이 如意珠를 드토는 듯 / 桃花를 썩거 쥐고 山水間의 드러가니 / 白鷗야 느지 마라 넷벗인 줄 모르는다 / 丹厓鳥道는 구름 속의 連ㅎ였고 / 綠柳黃鶯은 春風의 分別 업서 / 九十韶光을 간 디마다 자랑ㅎ니 / 羲皇淸境이 늦거오미 그지 업다 / 無情한 歲月은 물 흐르듯 ㅎ는 次의 / 有意한 綠擘이는 오락가락 ㅎ는고야”

索居閑處를 이곳이라 흐리로다
 불서 못은 줄은 오늘이야 찌듯괘라
 悔噬臍而莫及이니 뉘우춘들 잊지 흐며
 已往을 不諫하니 將來를 可追로다
 孫興公의 山水賦를 목내여 목게 읊고
 이지가 허리 찌자 이 아니 즐거온나
 이내 몸 依之하라 數間草屋을
 岩穴의 얼거미야 白雲이 덮퍼시니
 靑山은 四壁이오 구름은 가뢰로다
 石鼎의 煮食하고 丹穴의 採芝하니
 山中幽興이 이대도록 淸楚하라
 이리와 閑暇함도 惟天之命이로다

이렇게 깊은 산속의 ‘운림(雲林)’에 들어온 화자는 함께 지낼 벗이 없기에 적막감을 느끼지만, 유신(有信)한 청풍과 명월이 가득한 ‘이곳’의 절경에 만족한다. 소식(蘇軾)이 <전적벽부(前赤壁賦)>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강 위의 맑은 바람과 산속의 밝은 달은 귀로 들어오면 소리가 되고 눈에 담겨지면 색깔을 이루는데, 이를 취하여도 막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 무진장한” 보배같은 존재¹⁹⁾로 자연 경물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자연 경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풍속도 인후(仁厚)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난 자가 한가로이 지내기에 알맞은 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에서야 오게 된 것에 대한 회한의 심정도 드러내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과거의 그릇된 일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한편,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만큼은 반드시 바꿔보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거짓으로 미친 채하며 세상을 피했던 접여(接輿)가 공자(孔子)에게 은거를 권유한 뜻²⁰⁾이나 도잠(陶潛)이 <귀거래사(歸去來辭)>²¹⁾를 통해 드러낸 지취(志

19) 소식, <전적벽부>. “惟江上之清風，與山間之明月，而得之而爲聲，目遇之而成色。取之無禁，用之不竭，是造物者之無盡藏也。”

20) 『논어』, 『미자』. “楚狂接輿歌而過孔子曰，‘鳳兮鳳兮，何德之衰。往者不可諫，來者猶可追。已而已而，今之從政者殆而。’孔子下，欲與之言，趨而辟之，不得與之言。”

21) 도잠, <귀거래사>. “歸去來兮。田園將蕪胡不歸。既自以心爲形役，奚惆悵而獨悲。悟已往之不諫，知來者之可追。實迷塗其未遠，覺今是而昨非。”

趣)를 인유(引喻)하여, 환로에 잘못 나간 것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다시 나가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진(晉)나라 때 손작(孫綽)이 10여년 동안 산수자연을 유람한 뒤에, 산림에 은거하려고 마음먹었던 처음의 뜻을 마침내 이루게 되었다는 내용의 <수초부(遂初賦)>를 소리내어 읊으며 화자 자신도 벼슬을 그만 두고 은거 생활을 시작한 것에 대한 자족감을 발현하고 있다. 이어서 자신이 은거하는 공간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데, 산속 암혈에 엮어맨, 작은 초가집에 백운(白雲)이 덮이자 청산(靑山)은 벽이 되고 백운은 지붕이 되어 자연 그 자체가 안식처처럼 인식되었다. 게다가 이곳에서 돌솥에 음식을 삶아 먹고 단산(丹山)에서 영지를 캐는 신선같은 생활을 하니 산중의 그윽한 흥취가 청초(淸楚)하다고 찬탄했는데, 진시황의 폭정을 피해 상산(商山)에 숨어살았던 사호(四皓)의 전고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은거 생활을 도선적(道仙的) 삶으로 환치시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자연에 귀의하여 이처럼 한적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를 “이리와 閑暇흥도 惟天之命이로다”라고 표현하면서 굳은(君恩)이 아닌 천명(天命)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주자(朱子)는 『중용장구』 제1장에 있는 ‘天命之謂性’과 『논어』 『안연』편에 있는 ‘死生有命 富貴在天’ 등의 구절에 주를 달면서 ‘천명’의 의미를 만물의 창조 원리와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데, <운림처사가>의 화자는 기품(氣稟)의 천명인 운명에 기반하여 자신이 은거하게 된 까닭도 모두 하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역(周易)』 <계사전상(繫辭傳上)>의 “천명을 즐기고 알기 때문에 근심이 없다(樂天知命 故不憂)”는 말과 같이, 하늘의 뜻에 순응하며 자기 처지에 만족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광해 혼정기’라는 시기에는 강호자연의 세계와 정치현실의 세계가 모두 굳은(君恩)이 베푸는 하나의 질서 안에 존재할 수 없고, 강호자연의 삶과 정치현실의 삶이 서로 합일(合一)의 관계에 다다를 수 없다는 인식이 표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에엿븐 人生들은 慾心の 술 醉하야
 潛기고 다시 潛겨 씨드르미 쉰허 업니

歎羊甲之光陰을 百年만 녀겼더니
 悟蝸角之功名을 泰山도곤 크게 녀겨
 紅塵 華路의 불꽃희 넘나들며
 浮雲 ㄹ튼 富貴를 어이 그리 드톨 것가
 若飛蛾之撲燈이오 似赤子之入井이라
 꿈ㄹ튼 人生을 니ㄹ치 식여지며
 피ㄹ치 싸힌 財物 구름ㄹ치 호터지고
 六畜의 殃及호여 둑개지이 다 죽으니
 富貴榮華을 무름 꽃이 쏠혀 엷다
 探花의 눈 어두어 불꽃친 줄 몰나 보고
 옷 버슨 어린 阿孩 陽地겇맛 녀이느냐
 富貴貧賤이 各有天命이라
 草衣가 내 分이니 錦衣를 矜覺호라
 惡衣惡食을 삼긴 대로 먹어시면
 어니 제 ㄹ라셔 是非의 걸닐소니
 고은 옷 만난 飲食 내 分 엷슨 奴婢들과
 田畝와 家畬을 慾心으로 이로려고
 香餌를 들게 녀여 避糞 줄 모르는가

또한 탐욕에 사로잡혀 세속의 부귀공명이 하찮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에엷썸 人生’들이 뜬구름 같은 부귀를 얻으려 서로 다투는 현실을, 등불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과 우물에 들어가려는 갓난아기에 비유하여 비난하고 있다. 꿈같은 인생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산처럼 쌓인 재물은 구름같이 흩어지며, 육축(六畜)에까지 재앙이 미쳐 닭, 개까지 다 죽으니 부귀영화를 되돌릴 방도가 전혀 없다고 책망하며, 결국 부귀와 빈천이 모두 천명에 달려있다고 권계하였다. 그리고 허름한 옷이 내 분수라 여기고 맛없고 거친 음식을 주어진 대로 먹는다면 어느 누구도 시비를 가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수분(守分)의 삶을 지향하는 한편,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 노비, 논밭과 집 등에 욕심을 부리는 당대인들의 세태는 경계하였다. 결국 화자는 천명에 따라 수분(守分)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삶의 지향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2. 현세(現世)에 대한 개탄과 선취적(仙趣的) 삶의 동경

난세를 피해 자연에 귀의하여 은거 생활을 했지만, 혼란스러운 현실에 대한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던 화자는 『동몽선습』에 근거하여 삼대(三代) 이전과 이후의 현실상을 비교²²⁾함으로써 인류의 기본인 삼강오륜의 도리마저 무너진, 광해 혼정기를 우의적(寓意的)으로 비판하고 있다. 삼대 이전에는 성스러운 임금, 명철한 군주와 어진 재상과 뛰어난 보좌관들이 함께 강론하며 천하를 잘 다스리니 인심(人心)이 순후(淳厚)하고 천하가 태평하여 백성들은 함포고복(含哺鼓腹)하며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면서 춤을 쳤지만, 삼대 이후에는 용렬한 임금, 어두운 군주들과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신하와 집안의 도리를 해치는 자식들이 이어져 시속(時俗)이 변하게 되니 현명한 자나 어리석은 자, 귀한 자나 천한 자의 구별없이 사치를 숭상하게 되어 흥망성쇠가 무상(無常)하게 되었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는 요순(堯舜) 같은 어진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더라도 전국(戰國)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개탄하고 있다.²³⁾ 이처럼 성군(聖君)의 성세(盛世)에서 암주(暗主)의 난세(亂世)로 전환되면서 백성들은 고달픈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는데, 이들의 삶은 초목, 산천, 짐승 등 자연경물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되었다. 사납게 부는 바람에 놀란 초목은 엷어져 시들고 소나기에 뿌리까지 씻겨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초목이 다 죽으면 산천이 매몰되고 산천이 매몰되면 짐승들이 의탁할 곳이 없어지게 될 것을 근심하며 탄식하였다.²⁴⁾

22) 『동몽선습』, <총론>. “嗚呼，三綱五常之道，與天地，相終始。三代以前，聖帝明王，賢相良佐，相與講明之，故治日常多，亂日常少。三代以後，庸君暗主，亂臣賊子，相與敗壞之，故亂日常多，治日常少。”

23) <운림처사가>. “三代以前 聖帝明王 賢臣果 良佐들이 / 노호로 政事 미자 天下를 다스리니 / 人心이 淳厚하고 天下 太平하야 / 齊家治國을 無爲而化하실시 / 雨順風調하야 日月光華 하니 / 處處群生들은 衣食이 豐足하고 / 田野農民들은 含哺鼓腹하야 / 擊壤歌를 부르면서 足之舞之 하논고야 / 陽地 고틈터 누어이서 聖恩을 모로더니 / 三代以後 慵君暗主 亂臣賊子 相繼하니 / 時異事變하야 移風易俗하니 / 賢愚貴賤 업시 奢侈를 崇尚키로 / 盛衰興亡를 朝得暮失하니 / 太平時節 天子 1라도 戰國이 되닷말가 / 神農氏 書契 짓고 蒼頡이 作字홀 지 / 人倫大義 三綱五常 一時의 지어내니 / 노호로 미존 政事 文墨으로 記錄하니 / 王化도 分明 하야 察察한 타시로다 / 堯之日月 舜之乾坤 네와 엇지 달나시며 / 臯陶稷契은 어디 가고 못 불소니 / 淫雲이 蔽塞하니 日月이 어두에라”

24) <운림처사가>. “狂風의 놀란 草木 업더져 이우러서 / 쇠나기의 불휘 뺏겨 흐마 거의 다 죽

한편, 깊은 산 속 운림(雲林)에 들어온 화자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세상사를 잊고 선경에 도취되었다. 은거의 시간이 오래될수록 정치현실은 점점 잊혀졌고, 명협풀조차 없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산수자연에 더욱 탐닉했다. 비록 자신의 은거지까지 찾아오는 벗 하나 없어서 쓸쓸함을 느꼈지만, 흙바닥 위에서 잠을 자고 헌 누비옷을 입는 것을 분수로 여겼고, 질항아리의 술을 마시며 콩죽을 끓여 먹어도 자기 한 몸은 편안하고 고요했다.²⁵⁾ 장재(張載)의 <토상(土牀)>²⁶⁾ 시구를 인용하여 안빈낙도하며 청빈하고 소탈하게 사는 지취를 드러냈던 화자는, 이제 삼귀정 주변의 자연경물을 완상하고 그 흥취를 만끽하기 위해 편답(遍踏)을 시작한다.

茅簷의 晝靜하고 桂樹의 風清커늘
 葛巾布衣로 幽興을 못 이기여
 靑藜杖 힘을 삼마 솔 아래 구분 길노
 우리러 長嘯하고 任意로 도라보며
 靑山 여윈 골노 石逕을오 드러가니
 玄藹는 萬疊흔더 靑嵐이 7려잇고
 劍閣 宇宙의 디는 히 걸닌 빗치
 西王母 瑤池上의 山水屏을 돌너는 듯
 푸르거든 희지 마나 희거든 붉지 마나
 푸른 거슨 靑山이오 불근 거슨 落照로다
 松根을 비겨 누어 遠山을 바라보니
 거문고 가진 阿奚 酒器를 늦게 메고
 구름 속의 날 츠즈니 赤松子 오뎃던가
 林下仙 아니시면 巢父와 許由로다
 이 밧기 제 뉘라셔 이 山中의 날 츠즈리

으니 / 草木이 다 죽으면 山川이 埋沒하고 / 山川이 埋沒하면 飛禽走獸들이 / 依托이 專혀 업니 / 혜고 다시 혜니 天地의 7이 업다”

- 25) <운림처사가>. “雲林的 드러완지 日月이 하 오라니 / 今世 天子聖主 기 뉘라 히시논고 / 이 희는 어니 희며 이 둘은 어니 둘고 / 山中의 蓐蔕 업셔 節 가는 줄 모라더니 / 忘世間之甲子하고 醉壺裡之乾坤이라 / 柴扉의 개 즈스들 이 山中의 기 뉘 오리 / 土床 우희 즈을 자며 헌 樓飛 내 피이오 / 瓦樽의 술이 7득 豆粥이 새롭도다 / 麻衣로 草座히니 一身이 安靜하다”
- 26) 장재, <土牀>, 『장자전서』 권13. “土牀煙足紬衾暖 瓦釜泉乾豆粥新 萬事不思溫飽外 漫然清世一閑人”

고요한 한낮 무렵 계수나무에 맑은 바람이 불어오자 유흥(幽興)을 이기지 못한 화자는 갈건에 포의를 입은 채 청려장에 의지하여 은거지 주변의 선경을 보기 위해 길을 나선다. 숲 아래 굽은 길을 따라 길게 휘파람을 불면서 마음대로 주변 경관을 돌아보다가 푸른 산속 좁은 골짜기를 향해 돌길을 걸어 들어가니,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석양 무렵의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졌다. 울창한 초목이 푸른 아지랑이에 가려 있고, 석양의 붉은 해가 험준한 산에 걸려있는 모습은 마치 서왕모(西王母)가 사는 요지(瑤池)에 산수화 병풍을 두른 것 같다고 찬탄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요지’는 곤륜산(崑崙山) 꼭대기에 있다고 하는 아름다운 연못으로, 선녀인 서왕모가 주목왕(周穆王)을 영접하여 이곳에서 연회를 베풀었다는 고사가 전해지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화자는 자신의 은거지 주변 실경(實景)을 선계(仙界)인 ‘요지’에 빗대어 탈속적인 선경(仙境)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고, 이를 통해 현실세계와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선(道仙) 지향의 삶을 표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김상헌이, 정철이 지은 <관동별곡>의 세계를 초월적인 선경의 차원에서 수용함으로써 <관동별곡변사>에서도 관동팔경의 선경을 묘사하는 데 주요한 관심을 드러냈던 것²⁷⁾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송근을 베여누어 푸잡을 얼핏 드니 꿈의 혼 스람이 날다려 일운말이”를 한역(漢譯)하면서 그 앞에 원문에도 없는 ‘世有仙人人不知’라는 구절을 첨가하여 변사(變詞)를 선경적(仙境的) 취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²⁸⁾은 <운림처사>에 구현된 경물 인식 태도와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푸르거든 회지 마나 회거든 붉지 마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청산(靑山)’과 ‘낙조(落照)’가 구현하는 아름다운 경치를 다채롭고 오묘한 색감의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함으로써 선적(仙的) 분위기를 더욱 고취시키고 있다.

이어서 송근(松根)을 베고 누운 화자는 멀리 있는 산에서 거문고를 가진 아이가 슬그릇을 느슨하게 메고 나를 찾아 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곤륜산에 있는 서왕모의 거처에 드나들었던 선인(仙人)인 ‘적송자(赤松子)’가 아니면 은사(隱士)인 ‘소부(巢父)’와 ‘허유(許由)’가 찾아온 것으로 여기는

27) 윤승준, 『청음 김상헌의 “<관동별곡> 변사”에 대하여』, 『한문학논집』 제12집, 근역한문학회, 1994, 611~631면 참조.

28) 구사회, 『<관동별곡변사>의 역대 작품과 문예적 검토』, 『동양고전연구』 제26집, 동양고전학회, 2007, 111면 참조.

한편, 이들 외에는 아무도 산중의 나를 찾아오지 않을 것을 애석해 하며 속세를 떠나 자연에 귀의한 자신의 고독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런데 적송자, 소부, 허유 이외에 나를 찾아오는 존재가 없다는 이 표현의 이면에는 곧, 이들만이 내가 만나야 할 존재이고 다른 이들의 방문은 원치 않는다는 뜻도 함의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로 표상되는 가치를 지향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소부와 허유는 요(堯)임금이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것을 거절하고 기산(箕山)의 영수(潁水)에 숨어 살았던 은사로서, 물욕과 권력욕을 버리고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광해군 정권하에 김상헌이 표방하는 처사적 삶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머리를 두루혀서 巖穴을 여어보니
 山中의 늙은 어른 烏巾을 젓게 쓰고
 道服을 니미치고 靑衣童 암세우고
 잡거니 밀거니 두세 벗이 오노고야
 石壇의 마조 나가 풀 머리 搨禮하고
 松枝를 손조 썩거 靑苔를 뿌리치고
 年次로 버러 안자 欣然이 반기는 듯
 니르거니 對答하며 즐거오미 그지 업다
 瀟湘의 벗 만나미 이대도록 즐겁던가
 달甌의 松醪酒를 鸚鵡杯의 ㄱ독 부어
 잡거니 밀거니 醉토록 먹으면서
 冷冷 七絃琴을 高峯의 벗기 튼니
 依依 山水曲을 歷歷히 헤리로다
 人間의 먹은 귀가 巖下의 와 열니거다

그런데 머리를 돌려서 석굴을 바라보니 ‘山中의 늙은 어른’인 도사 서너 명이 검은 두건을 젓혀 쓰고 도복을 여며 입은 채 청의동자(靑衣童子)를 암세우고 화자를 찾아오고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화자는 석단(石壇)으로 마중 나가 인사하고 소나무 가지를 손수 꺾어서 이끼를 쓸어낸 후 나이 순으로 앉아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표출한다. 자신을

찾아온 벗과 함께 앵무잔에 술막걸리를 부어 취하도록 마시고 고봉(高峯)에서 거문고를 연주하니, 백아(伯牙)가 종자기(鍾子期)를 위해 거문고로 연주했던 ‘고산유수곡(高山流水曲)’을 듣는 것 같아 속세에서 귀먹었던 것이 이곳에서 트이게 되었다고 그 흥취를 표현하였다. 이는 곧 산중에서 자신의 심정을 알아주는 벗을 만나 음주교유(飲酒交遊)하는 즐거움을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山中의 늙은 어룬’이 등장하고 ‘잡거니 밀거니 醉토록 먹으면서 冷冷 七絃琴을 高峯의 빗기 툃니’ 하는 부분은 정철의 <성산별곡(星山別曲)>을 연상시킨다. <성산별곡>의 결사²⁹⁾에서 술 마시고 거문고 타면서 뜬구름 같은 세상사를 잊어버린 채 신선처럼 사는 주인의 모습을 본 손님은 손과 주인의 경계를 넘어 진선(眞仙)임을 깨닫게 되는데, 이와 관련시켜 보면 <운림처사가>에 형상화된 음주교유의 흥취는 곧 ‘도선적(道仙的) 삶에 대한 지향’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산중 생활에 자족(自足)하며 세상사를 다 잊은 화자는 화려한 속세 생활의 이면에 내재된 정신적 고통에서 점점 벗어나 소박한 은거 생활에 적응해 간다.

山中이 뜻이 깊피 世事를 니저시니
 膏粱의 여원 술히 취줄기의 찌노매라
 쫓 피자 새넙 나자 綠陰이 어리엿고
 崢嶸한 김픈 골의 碧溪水 潺潺하고
 丹崖의 돌 붉은디 澗水의 바람 물기
 白雲 김픈 골의 자딘 鶴 슬피 운다
 天高地迥하니 覺宇宙之無窮이오
 興盡悲來하니 識盈虛之有數로다
 예도 조커니와 또 조흔 더 잇느니라
 天台山 김픈 골의 石鼎道士 춧새이다
 崑崙山 김픈 골의 西王母 츠자보라
 長穹萬里의 거북 툃고 가새이다

29) 정철, <성산별곡>. “엇그제 비즌 술이 어도록 니건느니 / 잡거니 밀거니 술극장 거후로니 / 막음의 미친 시름 저그나 흐리느다 / 거문고 시음 언저 風풍入松窓 이야고야 / 손인동 주주인인인동 다 니저 버려셔라 / 長당空공의 찢는 鶴학이 이 골의 眞진仙선이라 / 瑤요臺 디 月월下하의 纒纒 아니 만나신가 / 손이셔 주주인인드러 닐오더 그디 권가 호노라.”

茫茫 宇宙間의 定處 업시 브린 몸이
醉倒空山裡 하니 天地則衾枕이로다

꽃 피자 새 잎 나고 녹음이 어리는 계절의 변화를 비롯하여 깊은 골짜기의 잔잔한 물결과 달밤에 부는 맑은 바람, 그리고 골짜기에서 슬피 우는 학까지 풍산 삼귀정 일대의 자연 경물을 예찬하며, 우주의 무궁함과 만물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화자는 현재의 은거지인 ‘여기 이곳’보다 더 아름다운 선경인 ‘조흔 디’라는 공간을 설정하게 되는데, 천태산(天台山)에 사는 도사 현원미명(軒轅彌明)을 찾아가고, 곤륜산 깊은 골짜기의 서왕모를 만나기 위해 먼 하늘로 거북을 타고 가자고 하면서 선계 지향 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백(李白)이 지은 <우인회숙(友人會宿)>의 시구 “醉來臥空山 天地即衾枕”를 변용하여 망망한 우주에 정처 없이 버려진 화자 자신이 술에 취해 빈 산에 누우니 하늘과 땅이 바로 이불과 베개처럼 느껴진다는 광달(曠達)한 기상을 표출함으로써 술로 현실의 시름을 잊고자 하는, 취락적(醉樂的) 풍류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

IV. 처사가(處士歌) 계열 작품과의 비교를 통한 <운림처사가>의 의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해동유요』 소재 가사 <운림처사가>는 광해 혼정을 살았던 김상헌이 사회의 혼란과 집권 세력의 박해를 피해 안동 풍산에 은거했을 당시 창작된 작품으로,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은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던 화자가, 은거지 일대의 승경을 대하여 선계로 인식하고, 신선이 된 것처럼 선계를 즐기며 안식과 위로를 얻고자 하는 선취적(仙趣的) 경향을 담지한 채 술을 통해 현실의 고뇌를 잊고자 하는 취락적(醉樂的) 태도가 변주(變奏)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풍산의 청원루와 삼귀정 일대의 자연에 귀의하여 풍류를 즐기며 속세의 번민에서 벗어나려는 피세적(避世的) 위안과 자신에게 주어진 분수에 만족하며 천명에 순응하려는 삶의 태도가 구현되어 있고, 위기지학(爲己之學)의 도학적 실천을 통하여

자아의 완성을 사회의 완성 안에서 찾는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이상³⁰⁾을 실현할 수 없는 당대의 부조리를 개탄하며 자신의 억압된 심정을 분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취적(仙趣的) 삶을 동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 양상은 자연에 귀의하여 운림처사가 되어 은일적 삶을 살고자 하는, 일군의 ‘처사가’ 계열 작품과 유사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해동유요』 소재 <운림처사가>는 처사가 계열의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 구성과 시상 전개 방식의 유사성에서 벗어나 개별작품으로서 독자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어 작품 간 비교를 통해 이 작품만이 가지는 변별적 의의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처사가’ 또는 ‘운림처사가’라는 제명이 붙어 있는 처사가 계열의 작품군은 대부분 창작연대와 작자 미상의 상태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부 시구나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 구성이나 시상 전개방식, 주제 등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평심 아지 쓸 데 읊서 세상공명 하직허고”로 시작되는 <처사가>³¹⁾는, 세상의 모든 부귀공명을 버리고 친지간에 태어나 주어진 운수에 따라 운림처사가 되어 산수자연 속에 은거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완상하며 풍류를 즐기고 유유자적하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작은 배를 타고 여유롭게 은어 잡이를 하는 어부의 삶과 흥취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은거 공간을 소부와 허유가 명리(名利)를 피해 은거했던 기산영수(箕山潁水)와 같은 별천지(別天地)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저녁 무렵 노을과 안개에 잠긴 강가에 늘어선 버드나무 가지와 물에서 뛰노는 은빛 물고기의 모습은 도잠(陶潛)의 오류(五柳)와 엄자릉(嚴子陵)의 동강(桐江)을 연상시키며 은자(隱者)의 흥취를 돋우고 있다.³²⁾ 그리고 깊은 산 속에서 속세와의

30) 성기욱, 『사대부 시가에 수용된 신선모티프의 시적 기능』, 한국고전문학회 편, 『국문학과 도교』, 태학사, 1998, 36면.

31) 작자미상의 ‘처사가’는 『해동가요』를 비롯하여 『조선가요집성』, 『조선고전가사집』, 『옥룡자십조경산서(玉龍子十條經山書)』, 가사집 『울곡선생자경별곡』, 『가사집』(충남대도서관 소장), 『증보가요집성』 등에 수록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악부』 소재 <처사가>를 자료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였다.

32) 『악부』, <처사가>. “구승갈포(九升葛布) 몸에 걸고 삼절죽장(三節竹杖) 손의 쥐고 / 낙조강호(落照江湖) 경(景) 조흔더 망혜완보(芒鞋緩步)로 내려가니 / 적적송관(寂寂松關) 다다른디 요요형원(寥寥杏園) 리 진난다 / 경기무궁(景概無窮) 조홀시고 산림초목(山林草木) 푸르윳다 / 창암병풍(蒼岩屏風) 돌닌는디 백운심처(白雲深處) 되었세라 / 강호(江湖)의 어부(漁父) 갖 치 하야 죽간사립(竹竿蓑笠) 적겨 쓰고 / 십니스장(十里沙汀) 내려가니 흰구비거(白鷗飛去)

인연을 끊고 한가로이 지내는 이는 나쁜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은거 생활에 대한 만족과 탈속적 풍류를 드러내고 있다.

작자미상으로 전해지는 ‘운림처사가’ 작품군³³⁾의 경우도 ‘처사가’와 마찬가지로, 일부 시어의 표기상 차이를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만 결사 부분은 이본에 따라 속세와 단절된 채 자연 경관을 즐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지향을 표출하거나 부귀공명을 다 버리고 은거했던 소부와 허유의 지취를 좇겠다는 뜻을 선언한 내용으로 구분되었다. 『천자문』의 ‘天地玄黃’과 ‘日月盈昃’ 구절을 활용하여 “천지현황 싱긴 후에 일월영칙 되어세라”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운림처사가>는 우주 자연의 광활함과 만물의 섭리를 전제한 채 하늘에서 주어진 운명에 따라 운림처사가 되어 산수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노래하였다. 은사(隱士)로서 청빈한 생활을 하는 화자는 산수자연을 가리켜 “경기무릉 조홀시고 괴산영슈 이 안닌가”라고 찬탄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은거지를 무릉도원과 영수(潁水)에 빗대어 별천지로 표현하면서 선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⁴⁾ 이어서 ‘처사가’와 마찬가지로, 작은 배를 타고 나가 여유롭게 은어 잡이를 하는 어부의 흥취를 표출하였고, 저녁 무렵 어촌의 두세 집이 노을과 안개에 잠긴 풍경을 바라보며 도잡이 팽택령(彭澤令)의 벼슬을 버리고 전원으로 돌아와 문 앞에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었던 일과 엄자룽이 제수받은 간의대부(諫議大夫)를 거부하고 동강(桐江)에서 낚시를 즐겼던 일을 환기하였다. 그리고 은거지 주변의 산수자연을 한가로이 돌아보며 부귀공명에 연연하지 않고 풍류를 즐기며 살아간다. 또 직접 마련한 고사리와 물고기로 식사를 하는 소박한 생활에 만족하던³⁵⁾ 화자는, 잡이온

뿐이로다 / 일위편범(一葦片帆) 놓히달고 만경창파(萬頃滄波)로 흘러 저어 / 슈척은어(數尺銀魚) 낙가니니 송강농어(松江鱸魚) 비길레라 / 일낙창강(日暮滄江) 저문 날의 박쥬포저(白洲蒲渚)로 도라드니 / 남북고촌(南隣北村) 두세 집은 낙화모연(落霞暮烟) 잠겨세라 / 괴산영슈(箕山潁水) 에 안이나 별유던디(別有天地) 여기로다 / 연명오류(淵明五柳) 심우신 데 처스유지(千條細柳) 느러졌다 / 즈릉택반(子陵澤畔) 낙던 던(臺)가 빅두금린(白頭金鱗) 썬누는다.

33) 작자미상으로 전해지는 ‘운림처사가’ 작품은 『악부』, 『역대가사문학전집』, 『가곡』(연세대학교 서관 소장), 『고금기』 등에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악부』에 수록된 #74㉠ <운림처사가>를 자료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였다.

34) 『악부』, <운림처사가> #74㉠. “삼승갈포 몸의걸고 구절죽장 손의쥐고 / 청파연월 조흔길에 망해완보 드러가니 / 적적송관 다든곳의 요요운학 기죽는다 / 경기무릉 조홀시고 괴산영슈 이안닌가 / 별유천지 곳으로서 산림초목 푸르러다 / 창이병풍 들녘는더 빅운만리 되엿세라”

물고기와 바꾼 술 두세 병을 한 잔씩 마시며 시냇가의 소나무 아래에서 들배개를 베고 낮잠을 자다가 달빛 아래 울어대는 두견새 소리에 잠을 깨 온갖 생각에 잠기게 되는 일흥(逸興)을 만끽하였다. 마지막으로 속세의 소식조차 전해지기 어려운 심처(深處)에서 뜬구름 같은 부귀공명을 생각하니 장주(莊周)의 호접몽(胡蝶夢)과 같다고 탄식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표출하는 한편, 소부와 허유가 남긴 절개를 좇으며 산수자연 속에서 은일적 삶을 살아가겠다³⁶⁾는 의지를 발현하였다.

이처럼 처사가 계열의 작품군에서는 운림처사로서 은거하게 된 상황에서 자연경관의 아름다움과 그곳에서 느끼는 흥취를 추상적으로 표출하고 있을 뿐 은거의 계기나 당대 현실에 대한 작가적 인식,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이념적 지향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처사가 계열의 작품에서 은거지는 자연의 조화와 질서가 유지되고 자족적 삶의 흥취가 어우러지는 이상적 풍류의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동유요』 소개 김상헌작 <운림처사가>에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정치적·사회적 혼란으로 가득한 당대 현실에 대해 부정(否定)함으로써 야기된 천명에 순응하는 운명론적 사고 속에서 ‘선계’라는 대리 만족의 공간은 좀 더 다채롭게 설정되었고, 현실에서 불우(不遇)하고 고독한 자아가 이러한 이상적 공간에서 유선적(遊仙的) 삶을 지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적(仙的) 흥취의 고양을 통해 안식과 위로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사 <운림처사가>를 관류(貫流)하고 있는, 산수자연을 벗하고 아름다운 선경을 소요하면서 잠시나마 속세의 근심과 시련을 잊고자 하는 작가의식은 대내외적으로 내우외환의 시기였던 16, 17세기에 산출된 유선시(遊仙詩) 창작 동인³⁷⁾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쟁과 전란으로 접

35) 『악부』, <운림처사가> #74㉔. “등남모산 너일 허고 관유모슈 오날 허시 / 초치산미 점심 허고 석조강어 저역 허세 / 성인 담박 너 즐기니 부귀공명 니 물너라”

36) 『악부』, <운림처사가> #74㉔. “천어환주 두세 병을 일비일비 다시 먹고 / 계번석침 도도 베고 송하한면 즙을 드니 / 서창낙월 발근 달에 슈성단가 씨다르니 / 서림즈규 슬피 울며 추중미스 도도는 듯 / 투장부인 이러느니 일흥풍경 그지 업다 / 원학미록 벗슬 숨아 만학천봉 오며가며 / 석경창터 막켓스니 진세 소식 쫓쳐졌다 / 부운부귀 생각하면 장화의 호접이라 / 형비모옥 빗겅스니 쇼허유결 좃츠리라 / 아마 세상 바린 물이 갑산풍경 함께 늙즈”

37) 16~17세기에 나타난 유선시(遊仙詩)의 출현 동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민의 논저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16~17세기에 유행한 유선시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 보았고, 유선시가 창작된 원인을 문예사조, 사상사, 작가의식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철되었던 정치적·사회적 혼란기인 16, 17세기를 겪어야만 했던, 조선조 도학자들은 가치가 전도된 혼란한 시대상황 때문에 도교사상에 경도되거나 사상적 굴절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통해 황포한 세계에서의 불우한 현실적 처지에 대한 대상심리(代償心理)로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었다.³⁸⁾ 김상헌도 자신을 가리켜 “도가 경전 읽고 있는 석실 늙은이(玄經石室翁)”라 칭할 정도로 도가서(道家書)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³⁹⁾ 또 실제로 병자호란 이후에 지어진 시작(詩作) 가운데 선계의 유선적(遊仙的) 지취를 노래한 유선시(遊仙詩)가 다수 전해지고 있다⁴⁰⁾는 사실은 광해군대의 안동은거시 창작된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병자호란을 계기로 심양에 억류되어 1645년 양주 석실로 돌아오기까지 6년여 동안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던 김상헌은 한시를 통해 현실 초탈의 열망을 표출하거나 선계에 대한 유람을 노래하는 등 선계 지향 의식을 구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향성은 선계 자체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려는 의도보다는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자신의 억압된 심정을 분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계’라는 이상적 공간을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⁴¹⁾

V. 결론

지금까지 김상헌의 문학적 생애 가운데 광해 혼정기 안동 풍산에서의 은거 양상을 재구하고, 이를 토대로 『해동유요』 소재 가사 <운림처사가>에 나타난 강호 인식의 양상과 도선(道仙) 지향 의식을 고찰하였다. 병자호란 이후의 절의를 드러낸 작품 양상에만 편중되어 김상헌의 문학 세계가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했던 상황에서 가사 <운림처사가>는 광해 혼정기의 지식

고찰하였다. 정민, 『초월과 상상』, 휴머니스트, 2007, 119~174면.

38) 손찬식, 『조선조 도가의 시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1995, 303~304면.

39) 김상헌, <送鄭學士子容出補金堤> 기일(其一), 『청음집』 권1.

40) 김상헌은 『설교집』에 <차유선사운(次遊仙詞韻)> 10수와 <유선(遊仙)> 3수의 유선시 작품을 남기고 있고, 이외의 작품들에서도 유선에 대한 관심과 선망(仙望), 선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김하운, 『청음 김상헌의 유선시 소고』, 『어문연구』 73집, 어문연구학회, 2012, 164~165면 참조.

41) 김하운, 위의 논문, 167~169면 참조.

인으로서 현실에 대응하는 양상과 작가의식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당쟁과 전란이 연속되었던 혼란기를 보냈던 김상헌은 의리와 절의를 중시하는 도학자적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환로에 들어선 후부터 광해군을 비롯한 대북파 세력과 대립하며 정치적 부침(浮沈)을 거듭했던 그는, 1618년 사회의 혼란과 집권 세력의 박해를 피해 안동의 풍산으로 내려가 1621년 양주의 석실로 돌아가기까지 3년 동안 이곳에서 은거하였다. 그는 풍산에 있는 청원루에서 은거 생활을 시작했는데, 청원루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는 삼귀정 주변의 아름다운 산수자연의 경치를 완상하며 세상의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곳은 그에게 있어서 피세(避世)를 위한 은일의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지인들과 교류하며 회포를 푸는 풍류의 장(場)으로 심적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안동 풍산 은거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사 <운림처사가>는 광해 혼정기의 현실에 대한 실망으로 산수자연에 은거한 처사의 삶을 노래한 작품으로, 풍산 삼귀정 일대의 자연경관을 완상하며 풍류를 즐기는 삶을 통해 속세의 번민에서 벗어나려는 피세적(避世的) 위안과 주어진 분수에 만족하며 천명에 순응하려는 삶의 태도가 구현되어 있었다. 또한 정치적·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당대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삼귀정 일대의 승경을 '선계'라는 대리 만족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현실에서 불우(不遇)한 자아가 신선이 된 것처럼 선계를 즐기며 안식과 위로를 얻고자 하는 선취적(仙趣的) 삶을 지향하고 있었다.

아울러 가사 <운림처사가>의 작품 양상은 창작연대와 작자 미상의 상태로 전해지는 처사가 계열의 작품군과는 차이를 보였다. 처사가 계열의 작품군에서는 운림처사로 은거하게 된 상황에서 자연경관의 아름다움과 그곳에서 느끼는 흥취를 추상적으로 표출하고 있을 뿐 은거의 계기나 당대 현실에 대한 인식,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이념적 지향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해동유요』 소재 김상헌작 <운림처사가>에서는 광해 혼정기의 현실에 대해 부정함으로써 야기된, 천명에 순응하는 운명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선계'라는 이상적 공간을 설정하여 불우한 자아가 유선적(遊仙的) 삶을 지향함으로써 위안을 얻고 있었다.

본고의 논의는 16, 17세기 광해 혼정기를 겪었던 안동 지역 향촌사족 작가들의 시가 창작 양상과 작가의식에 대한 연구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대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체험과 의식이 문학 작품에 투영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광해 혼정기에 대북파 세력과의 갈등을 노정(露呈)한, 안동 지역 향촌사족 작가들의 다양한 현실 인식과 문학적 대응 양상을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해동유요(海東遺謠)』

『악부(樂府)』

김상헌(金尙憲), 『청음집(淸陰集)』

신흠(申欽), 『상촌집(象村集)』

2. 단행본

김상헌 지음, 『(국역)청음집』, 정선용 역, 민족문화추진회, 2006

손찬식, 『조선조 도가의 시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1995.

이종은, 『한국시가상의 도교사상 연구』, 보성문화사, 1982.

정민, 『초월의 상상』, 휴머니스트, 2002.

정소연·이종석 엮음, 『해동유요 주해본』, 박이정, 2019.

3. 논문

구사회, 「〈관동별곡번사〉의 역대 작품과 문예적 검토」, 『동양고전연구』 제26집, 동양고전학회, 2007, 105~123면.

김하윤, 「청음 김상헌의 유선시 소고」, 『어문연구』 73집, 어문연구학회, 2012, 161~184면.

_____, 『청음 김상헌의 한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2.

성기욱, 「사대부 시가에 수용된 신선모티프의 시적 기능」, 한국고전문학회 편, 『국문학과 도교』, 태학사, 1998, 11~49면.

_____, 「『조주후풍가』 해석의 문제점:이시의 『조주후풍가』와 광해 혼정기의 안동사람(1)」, 『진단학보』 제110호, 진단학회, 2011, 261~297면.

_____, 「『조주후풍가』 창작의 역사적 상황과 작품 이해의 방향:이시의 『조주후풍가』와 광해 혼정기의 안동사람(2)」, 『진단학보』 제112호, 진단학회, 2011, 127~180면.

윤승준, 「청음 김상헌의 “『관동별곡』 번사”에 대하여」, 『한문학논집』 제12집, 근역한문학회, 1994, 611~631면.

이혜화, 「『해동유요』 소개 가사고」, 『국어국문학』 96호, 국어국문학회, 1986, 85~104면.

_____, 「『해동유요』 가사 개별작품고 I; 병자난리가·운림처사가」, 『한성어문학』 제9집, 한성어문학회, 1990, 85~136면.

- 정소연, 『《해동유요》에 나타난 19세기 말 20세기 초 시가 수용 태도 고찰-노래에서 시문학으로의 시가 향유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교육』 제32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6, 287~326면.
- 하진규, 『청음 김상현의 생애와 문학』,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2.
- 황만기, 『안동체류기에 있어서 청음 김상현의 활동과 문학』, 『국학연구』 제20집, 한국국학진흥원, 2012, 497~526면.

The Aspect of Natural Awareness and Tao-Oriented Consciousness
Appearing in *Unlimbeosaga*

Song, Jae-yeon

This thesis is written to reconstruct Kim Sang-heon's life in seclusion in Pungsan, and to examine the aspects of nature perception and Tao-oriented consciousness expressed in his *Unlimbeosaga* in Haedongyuyo.

Having spent a period of chaos in which political party strife and war continued, he lived a moral life that valued loyalty and incisivness. From the beginning of his official duties, he was politically opposed to the ruling forces, including King Gwanghae-gun, and in 1618, he went down to Pungsan to live there to avoid social turmoil and persecution of the ruling forces.

He was able to forget the troubles of the world while admiring the beautiful natural scenery around Samgwijeong in Pungsan, so this place is meaningful as a space for seclusion. Not only that, this place was also a place where you could get mental comfort as a place of taste for the arts to socialize with your acquaintances.

His *Unlimbeosaga* is about the life of a scholar who lived in nature in disappointment with the reality of the time during the reign of King Gwanghae-gun. It embodies the aspect of escaping from the troubles of the world through enjoying the natural scenery and the attitude of living to conform to fate. In addition, by denying the politically and socially chaotic reality of the time, the beautiful scenery around the Samgwijeong is set as a space of surrogate satisfaction called 'the world of Taoist hermit with miraculous powers', and in reality, as if a lonely self became a Taoist hermit with miraculous powers, enjoy the beautiful scenery and give them rest and comfort.

Keywords : Haedongyuyo, *Unlimbeosaga*, seclusion, Kim Sang-heon, Samgwijeong, heaven's Mandate, unworldly path, Chwilag

접수일자: 2022. 3. 31.

심사기간: 2022. 4. 1.~2022. 5. 10.

게재결정: 2022. 5. 10.

